# 삼나소식

131호
11월 1일, 2026년

SAMNA NEWSLETTER
나성교회에서 세상 (삼라, 森羅)에 전하는 복음의 소식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이번주 은혜의 말씀

##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 주님이 오셨다면 할 일은 하나뿐이에요. 죽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죽인 것을 매일 동의하는 생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나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시는 무대가 되어, 나의 죽음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
> – 본문 주일설교 (10/18) 중 발췌·정리 –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본래 형상과 모양이 없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이 필요하셔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손을 위하여 장갑을 만드신 것과 같습니다. 장갑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손이 들어가면 위대한 일을 해내듯,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존귀이자 가치요 위치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을 바라보며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이 불만을 없애기 위해 배우고 열심히 돈을 벌며 애를 쓰지만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 그의 배필인 여자를 만드셨듯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분의 한 짝이 되는 배필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도록 에덴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고, 생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선악과는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는 무서운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나타나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며 꾀었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그럴듯하고 합리적으로 여겨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순간 인간은 사탄의 체현, 즉 완전히 마귀화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흙으로 지어졌을 때는 나라는 주인이 없었으나, 하나님만 들어오셔야 할 형상 속에 사탄이 들어와 '내가 주인 된 나'라는 가짜 하나님이 탄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가짜 하나님이 되어 내가 나의 주인이 된 것, 이것이 바로 내 일생을 망치는 원죄입니다.

복음은 타락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열심히 걸어가야 목적지에 도달한다고 생각하지만, 기독교는 이미 도달된 것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때,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바닷가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뒤에는 적이 쫓아오고 앞은 바다인 죽음의 장소에서 백성들은 원망하며 돌을 들었지만, 바닷물이 갈라져 길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겠다고 원망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영생하는 샘물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후 고난과 어려운 환경을 주시는 목적은, 내 안의 반석(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깨뜨려 영원한 생수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승격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도를 배우거나 지키는 철학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사탄화된 옛 사람(아담)을 죽음으로 완전히 끝낸 사건이며, 부활을 통해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새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를 망치는 것은 부모나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있는 '사탄화된 나'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평생 불안과 염려, 근심과 고통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생각과 계획으로 살아가려는 삶은 갈수록 환난과 고통뿐이며,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조차 자기 힘으로 하려 한다면 평생 고난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고, 자랑할 것이 없으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매일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세 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하셨고, 이를 깨달은 바울은 자신의 약함과 궁핍, 고난을 자랑했습니다.

배가 얕은 물에서 바위에 부딪힐 때 하나님은 바위를 치워주시는 대신, 바위를 넘을 수 있도록 은혜의 물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어떤 문제나 환경을 바라보며 염려하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불신앙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모든 건강, 가정, 삶의 문제를 친히 주관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어떤 높은 경지에 올라가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완성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상처럼 섬겨오던 나를 십자가에 내던질 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셔서 온전한 평강과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 2:20)

전체 설교 영상은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뒷면에서 영어번역본과 교회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nglish Translation

# Peace from Knowing Our Purpose

**Passage:** Galatians 2:20 (ESV)
**Pastor:** Dong Suk Chung
This QR code is for the full sermon

God is Spirit, so He has no physical form. He made human beings as vessels for His presence. It is like making a glove for a hand. A glove can do nothing alone, but when a hand enters it, it can do great things. In the same way, God made us so He could dwell in us and work through us. Designed to hold God, we find our purpose, our value, and our place. Yet people today look at themselves and feel dissatisfied, carrying an emptiness they can't explain. We study, work hard, and chase money to fill it, yet lasting satisfaction never comes. To fix the problem, we have to find its root.

Just as God created a companion for Adam after putting him to sleep, Christ's death on the cross prepared a bride for Himself, the church. To make this a reality, He placed two trees in the middle of Eden: the tree of life and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By eating from the tree of life, God and man were meant to become one. But God warned them about the other tree: *"the day that you eat of it you shall surely die."* However, Satan appeared and deceived them, saying, "*You will not surely die. For God knows that when you eat of it your eyes will be opened, and you will be like God, knowing good and evil.*" Humans found Satan's words more convincing than God's and ate the forbdden fruit. In that moment, Satan entered into human beings and took over, so that humans became the embodiment of Satan. When we were first formed from dust, there was no "master" called "me". But Satan entered the form that was meant for God alone, and a fake god was born: the "I" who is in charge. This is why Jesus said, *"You belong to your father, the devil,"* and *"You brood of vipers!"* This desire to be our own master is the original sin that ruins our lives.

When the Israelites left Egypt, God led them to the edge of the sea, which seemed like a place of death, with enemies behind them and water ahead. So the people complained. Then God parted the sea and made a path. Later, when they grumbled that they were dying of thirst, God had Moses strike a rock and water poured out. That rock points to Christ, struck for us on the cross. Today, we are spiritually thirsty and perpetually dry despite filling ourselves with everything but Christ. But God sees our suffering and wants us to be fulfilled with the eternal living water that is Jesus Christ. The hardships God allows lead us back to that cross, where our old self dies with Jesus and living water flows.

Christianity is not a philosophy to learn; it is based on a real historical event in which Jesus bore the burden of our sins, died on the cross, and rose again. The cross is the event that completely brought an end to the old, Satan-possessed self. Through His resurrection, a new life has begun where Christ now lives within me.

What makes us miserable is not our parents or our circumstances. It is the Satan-possessed "me" that is still alive inside us. As long as that "I" lives, anxiety, worry, and pain will never end. A life run by our own plans, with ourselves in charge, only brings more trouble. Even trying hard to be a good Christian becomes a lifelong burden if we do it in our own strength. The apostle Paul confessed that he decided to know nothing but the cross, had nothing else to boast about, and died daily. The core of the Christian life is not what I do for the Lord, but surrendering myself over to the death of the cross every day. When Paul prayed three times for his thorn to be removed, God said,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Once Paul understood this, he was grateful for his weakness, his need, and his hardships.

When a ship bumps against rocks in shallow water, God does not remove the rocks. He abundantly fills the water with grace until the ship floats over them. Looking at any problem or environment with anxiety is proof that "I" am still alive and an act of unbelief of stepping into the role that belongs to God. When I die, Christ who is within me appears and personally takes charge of my health, my family, and every problem in my life. The message of Galatians 2:20 is not about achieving something by reaching a higher spiritual level. It is about receiving by faith a finished fact: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lives in me.*" When we surrender the self we have worshiped like an idol and nail it to the cross, the living Holy Spirit within us goes to work, allowing us to enjoy a life of perfect peace and victory.


나성교회
Nasung Church




## 예배안내

| 모임 | 시간 | 장소 |
|---|---|---|
| 주일예배 1부 | 오전 8시 | 대예배실 |
| 주일예배 2부 | 오전 11시 | 대예배실 |
| 수요 예배 | 오후 7시 30분 | 대예배실 |
| 영어부 예배 | 오전 11시 10분 | EM 예배실 |
| 청소년부 | | |
| 유치부 | 오전 11시 10분 | 유치부실 |
| 유년부 | 오전 11시 10분 | Seeds Room |

## 교회 연락처


562 - 690 - 7979
www.nasungchurch.org
redeemerheights.com (EM)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information@nasungchurch.org
samnanewsletter@gmail.com
(삼나소식 이메일)